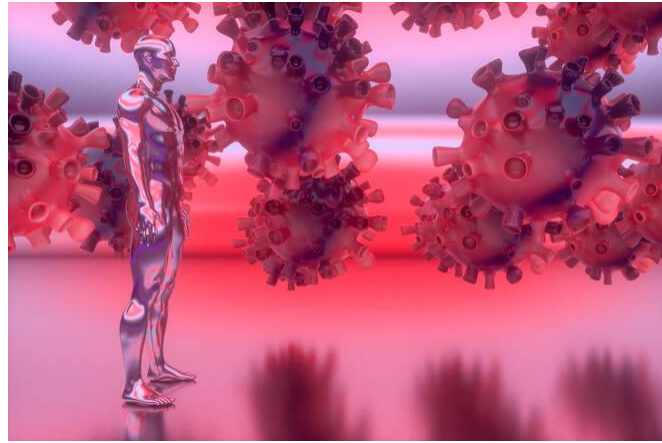




코람뉴스 (2021 년 8 월)



코로나 이후 (POST-CORONA) 시대

인맥관리

고대 이스라엘의 지혜의 왕, 솔로몬(Solomon)의

부왕(父王), 다윗왕은(David)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귀감이 될 좌우명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승리하거나 성공할 때 흥분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패배하거나 실패했을 때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마음가짐을 좌우명으로 삼고, 이를 잊지 않고 되새기기 위하여 그의 반지에 새겨놓았던 글귀는 '이것 또한 곧 지나가리라(This, too, shall pass away soon) 였다고 한다.

이 글귀는 온갖 영욕(榮辱)도 시간이 흐르면 곧 사라지고 마는 것이니 어느 것에나 설부르게 집착하여 일희일비 (一喜一悲) 하지 말자는 것을 뜻하는 글일 것이다.

따라서 이는 '시간이 모든 문제를 해결 한다. 즉, 시간이 약이다(Time heals all wounds)'라는 금세기 서양속담(Western proverb)을 소환(召還)하는 글귀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앞으로 확실히 언제 끝날지도 모르게 더 계속되는 지금과 같은 위드 코로나(with corona)시대를 차치(且置)하더라도지금까지 우리는 1년 이상을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은 물론,

심지어 부모 형제 자녀들과의 만남도 자유롭지못하다보니,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란 신조어까지 생겨나기도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위드 코로나 시대는 물론,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삶의 지침과 사람들 간의 효과적인 인맥관리를 실행하여야 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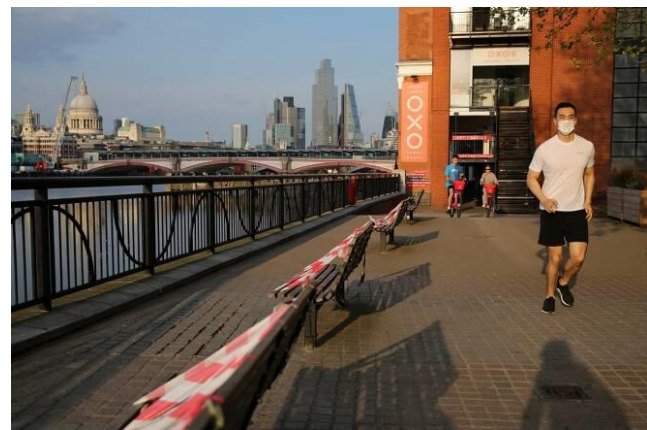
인맥관리(Management of personal connection)는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아 쉽게 다룰 수 없는 일종의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 metaphysical) 사안을 다루는 것으로서, 유대인의 탈무드 (Talmud)에 나타난 구체적인 인맥관리요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탈무드는 B.C.500년부터 A.D.500년까지 유대인(Jew)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지혜들을 모아 10년에 걸쳐 2천여 명의 학자들이 책으로 만든 것이다.

탈무드는 히브리어로 연구(research), 배움(learning), 또는 교훈(lesson), 교의(tenet)를 뜻하며, 영어의 사전적 의미는 해설을 붙인 유대교의 율법(commandments) 및 전설(legend) 모음집인데, 유대인의 문화, 종교, 도덕, 전통적 관습을 망라한 책 즉, 유대인의 지적재산(知的財産)과 정신적 자양분을 담고 있는 이스라엘의 '전통생활지침'라고 할 수 있다.

탈무드중에서, 인맥관리 17 개 계명(Seventeen Commandments on the Management of Personal Connection)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지금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지마라. 힘없고 어려운 사람은 백번 도와줘라.
그러나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은 경계하라.
2. 평소에 잘해라. 평소에 쌓아둔 공덕은 위기 때 빛을 발한다.
3. 내 밥값은 내가 내고 남의 밥값도 내가 내라. 남이 내주는 것을 당연 하게 생각하지 마라.
4.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큰소리로 말하라. 마음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사가 아니다. 남이 내 마음속까지 읽을만큼 한가하지 않다.
5. 남을 도와 줄 때는 화끈하게 도와줘라.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흐지부지하거나 조건을 달지 마라. 괜히 품만 팔고 욕만 먹는다.
6. 남의 험담을 하지마라. 그럴 시간 있으면 팔굽혀펴기 운동이나 해라.
7. 직장 바깥사람들도 골라서 많이 사귀어라. 직장 사람들하고만 놀면 우물 안 개구리 된다.
직장 그만두면 고아가 된다.
8. 불필요한 논쟁, 지나친 고집을 부리지 마라. 직장은 학교가 아니다.
9. 회사 돈이라고 함부로 쓰지 마라. 사실은 모두가 다 보고 있다.
10. 가능한 한 옷을 잘 입어라. 외모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
11. 남의 기획을 비판하지 마라. 네가 쓴 기획서를 떠올려봐라.
12. 조의금을 많이 내라. 사람이 슬프면 조그만 일에도 예민해진다.
13. 약간의 금액이라도 기부해라. 마음이 넉넉해지고 얼굴이 핀다.
14. 수위아저씨, 청소부아줌마, 음식점종업원에게 잘해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경계하라.
나중에 네가 어려워지면 배신할 사람이다.
15. 옛 친구들을 챙겨라.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드느라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산을 소홀히 하지 마라.
16. 너 자신을 발견하라. 한 시간이라도 좋으니 혼자서 조용히 생각 하는 시간을 가져라.
17.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순간은 나중에 네 인생의 가장 좋은 추억의 대상이다.





♠♠♠♠♠ 8 월 생신을 축하합니다. ♠♠♠♠♠

최병준님 (6 일, 508 호),
장정숙님 (26 일, 505 호),
김옥숙님 (10 일, 306 호),
소 크리스티나 (14 일, 405 호)

환영합니다..

203 호에 정건영님과 윤향순님이 새로 이사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반갑게 맞이해요!!! 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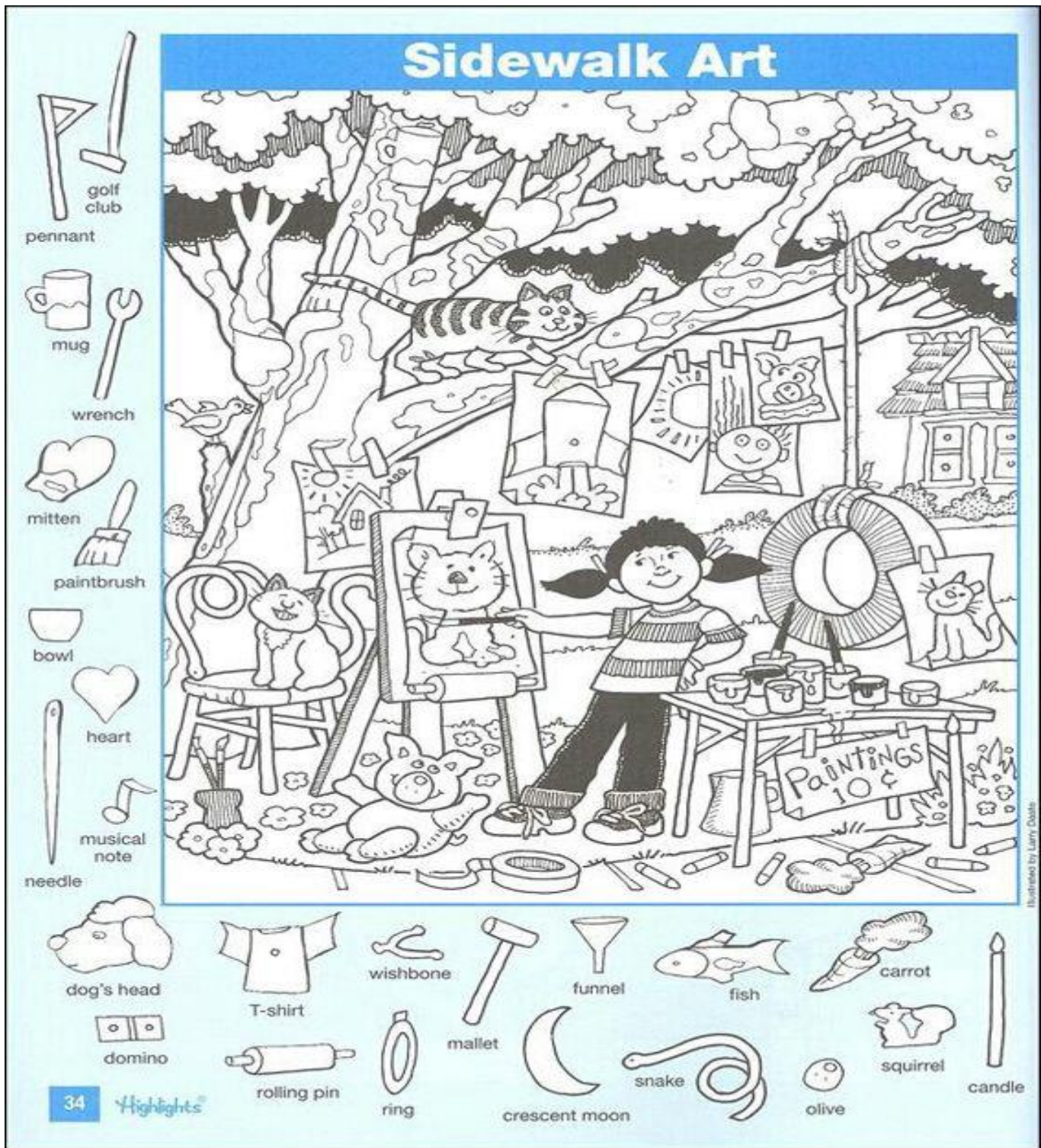
알림

- ♣ 2021 년 가을 & 겨울 에너지 보조신청은 9 월 1 일부터 신청한다고 하네요. 8 월 하순에 받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서비스 코디네이터에게 보여주세요. 복사한 후에 돌려드립니다.
 - ♣ 23 일부터 27 일까지는 AASC (American Association of Service Coordinators) 에서 주최하는 교육에 다녀옵니다. 미국 전역에서 서비스코디네이터로 일하는 직원들에게 실시되는 교육이랍니다, 많이 배워서 더 좋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 ♣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종식되지는 않았지요?? 지금도 세계적으로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구요. 이러한 시점에서 갑자기 건강상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직원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조금만 힘내서 잘 견디도록 해요!!! 화이팅 !!!!**
- 여전히 자주 20 초 이상 손씻기와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리실에서 알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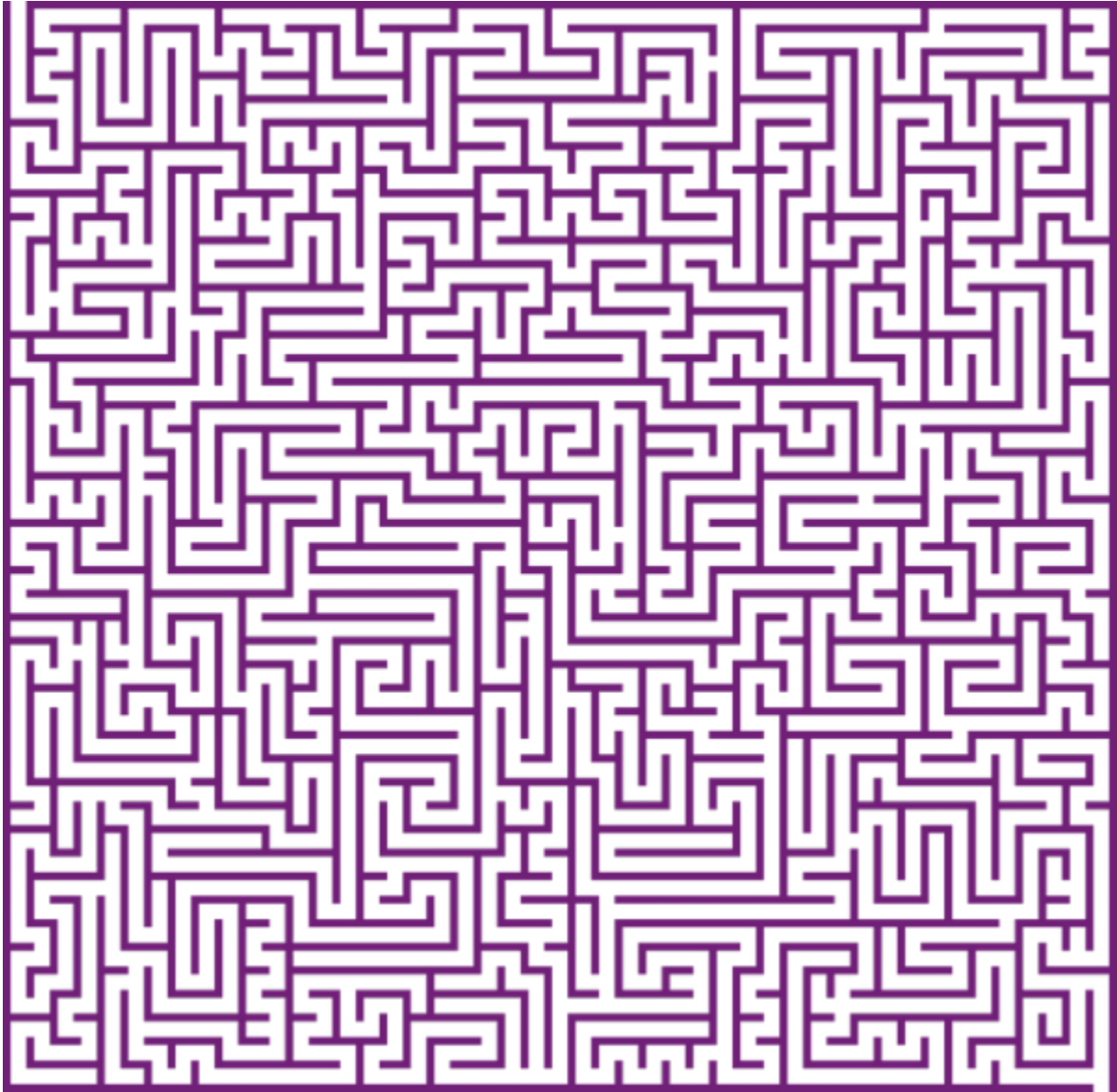
♥ 쥐를 잡기 위해서 Glue Trap 을 집안에 설치해 놓은 분들은 간간히 점검해 보시고, 잡힌 쥐가 있으면 곧바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또 다른 벌레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우선 쥐들이 내 집에 들어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음식찌꺼기는 자주 버려주어야 합니다.

♥ 2 층에서 지난 7 월에 bed bug 문제가 있어서 전문 기관으로부터 확실한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새것이 아닌, 친구에게서 받은 것 또는 중고 가구점에서 구입한 가구, 즉 소파 또는 침대, 식탁, 의자 등을 들여올 경우에는 매니저 사무실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숨은 그림 찾기: golf club (골프채), pennant (우승깃발), mug (머그잔), wrench (렌치라는 공구), mitten (범어리 장갑), paintbrush (페인트 붓), bowl (오목한 그릇), heart (사랑 표시), needle (바늘), musical note (음표), dog's head (멍멍이 머리), T-shirt (티셔츠), domino (도미노 볼), rolling pin (밀채), wishbone (닭가슴에 붙어있는 뼈), ring (반지), mallet (나무망치), crescent moon (초승달), funnel (깔때기), snake (뱀), fish (물고기), olive (올리브), carrot (당근), squirrel (다람쥐), candle (촛불)

미로를 찾아가 볼까요??



그러나 너무 어려웠다고요????

춘향전 바로 알기 시리즈 4 : 정보제공 민산 김정교님 (코람 312 호)



현재 전해져 내려오는 '춘향가' 중에서 가장 초기인 것인 '가사 춘향가 200 구'는 1754년 (영조 30년) 충청도 옥천군 이동면에서 태어난 자가 중백 (重伯) 호가 만화당 (晩華堂) 유진한 (柳振漢) 1711년 (숙종 37년)~1741년 (정조 15년)이 지난해 호남지방을 유람하며 직접 듣고 본 판소리 춘향가를 칠언장시 (七言長詩)로 옮긴 것으로 43세때 작품이다.

처음 배울때부터 교과과정을 엄하게 배워 밤낮으로 독서하며, 특히 시 창작기법을

연구했으며 시로서 이름이 높았다. 연조때 천안 옥천을 중심으로 향당 시인으로 지방 유명한 선비들과 시를 수창하는 모임을 결성해 서로 시를 읊기도 했다.

충천도 문장(文章)으로 문명이 높았으며, 끝내 대과에는 급제하지 못해 벼슬길에 나가지 못한 불우한 선비였다. <가사 춘향가 200 구>에서는 16세의 이도령과 15세의 춘향이 만난다.

춘향이 3월에 놀이를 나와서 만화사앞 시냇물에서 목욕하고 그네를 타기도 한다. 광한루에서 이룬 본 이도령이 방자를 통해 만나게 된다. 도령이 춘향집에 가서 불망기 (不忘記)를 쓰고 인연을 맺는다. 사랑을 나누기는 짧은 세월, 사또의 임기가 끝나 이도령이 한양을 가게되자 춘향은 <이별가>를 부르며 이별한다.

상경한 도령은 과거에 응시하여 알성과 (謁聖科)에 장원으로 급제, 한림 (翰林), 정자 (正字), 교리 (敎理)를 두루 거쳐 호남 어사를 제수 받는다. 어사가 호남으로 오는 도중에 농부에게 물으니 성주 (城主)가 광망 (狂妄)스럽다 한다. 어사가 춘향집을 찾아가니 월매가 어사를 몹시 업신여긴다. 어사가 옥문을 찾아가니 춘향이 삼목 (三木, 곤장으로 정강이를 치는 형벌)에 의거하여 그의 슬픈 사실을 울면서 말하기를, 부사의 수청을 거절하다가 옥에 갇혔으며, 꿈을 꾸니 거울이 깨지고 꽃이 날라서, 봉사를 불러 해몽하니 귀인을 만나게 된다고 했다 한다.

춘향은 이제 낭군을 만났으니 한이 없지만 내일 본부 (本府)의 잔치 끝에 맞아 죽으면 염습이나 해달라고 부탁한다.

